

2014년 닭고기 수급안정 대책의 성과와 과제



김형진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 국내 다섯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발생하여 10개월이 지나도록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AI 상재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육계에서는 한차례도 AI가 발생하지 않아 우리나라 육계 사육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육계산업은 AI보다 파괴력이 강한 닭고기 공급과잉 상황과 직면해 있다. 잉여 생계 구매·비축을 통해 일시적으로 활기를 찾았지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도계 마릿수 증가가 전망되며, 2015년에도 불황이 이어질까 우려된다.

본고에서는 2014년 육계 산업의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수급안정 대책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1. 2014년 닭고기 산업 동향

2014년 1월 국내 다섯 번째 AI가 발생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자연 소멸된다는 AI 바이러스는 여름을 지난 10월 27일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또다시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국내에 AI 바이러스 상재화(연중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4년 AI 발생으로 육계 350만 마리, 육용 종계 48만 마리, 육용 원종계 16만여 마리가 매몰처분 되었으며, 종란도 1,000만개 이상이 처분되었

다. 다행스럽게도 육계에서는 AI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업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닭고기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육계산업은 2013년 원종계 쿼터제를 시행함으로써 2014년 종계 감축을 통한 닭고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먼저 9월까지 종계 입식과 도태를 살펴보면, 종계 병아리 입식은 512만 2천 마리로 전년동기간(526만 8천 마리)보다 2.8% 감소했다. 원종계 쿼터제와 AI 영향으로 종계 병아리 입식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다. 반면에 종계 도태는 382만 5천 마리로 전년 동기간(436만 2천 마리)보다 12.3% 감소했다. 과거 5년 동안 종계 입식 증가세를 감안했을 때, 2014년 종계 도태 감소는 상식적으로 설명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대한양계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8월 육용 종계 성계 평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14.3% 증가한 429만 7천 마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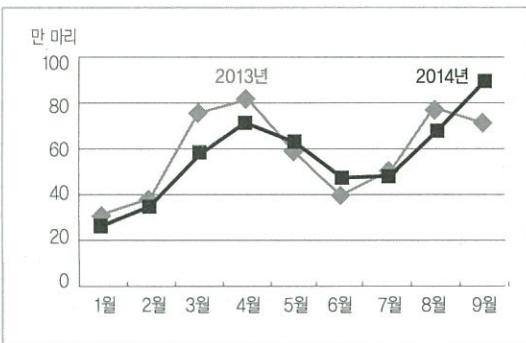
조사되었다. 금년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약 48만 마리의 육용 종계가 매몰처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이다.

시장 점유율 확대, 공장 가동률 정상화, 육계 생산량 증가 등 각각의 계열업체 상황은 다르지만, 이 문제들의 공통적인 해결방안은 종계 환우를 통해 생산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종계가 환우됨에 따라 2014년 5~12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가 환우 전보다 평균 9%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상반기 종계 병아리 입식 감소로 하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는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종계 환우로 인해 하반기에도 전년 대비 병아리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으며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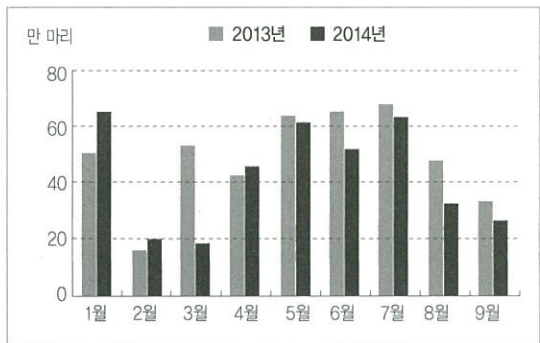
병아리 생산량 증가로 2014년 도계 마릿수는 종전의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다. 1~9월 총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13.5% 증가한 6억 7,441만 마리였다. 2009년 연간 총

〈표 1〉 육용 종계 입식 동향



※자료 : 대한양계협회

〈표 2〉 육용 종계 도태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표 3〉 육용 증계 성계 사육마릿수 동향

(단위 : 천 마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평균
2014년	4,071	4,276	4,437	4,826	4,605	4,280	3,959	3,925	4,297
2013년	3,624	3,932	3,994	4,293	4,015	3,754	3,127	3,334	3,759
증감률(%)	12.3	8.8	11.1	12.4	14.7	14.0	26.6	17.7	14.3

※자료 : 육계 수급예측 기초자료, 대한양계협회

도계 마릿수가 6억 8천만 마리였던 걸 감안하면, 올해 도계 마릿수 증가율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9월 각 달마다 종전의 도계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연중 도계마릿수가 가장 많은 7월에는 1억 마리를 돌파했다.

연말까지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4년 총 도계 마릿수는 전년 7억 9천만 마리를 훌쩍 넘어 9억 마리에 가까운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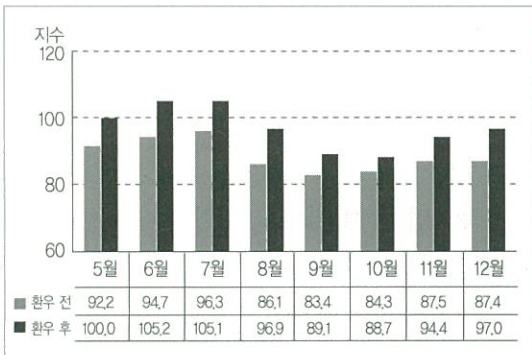
육계 산지가격은 수요보다는 공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1~9월 도계 마릿수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1~9월 평균 육계 산

지가격은 1,542원/kg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5% 하락했다. 평년보다는 19.0% 하락한 수준이다. 4월에 종란 폐기로 인한 닭고기 공급부족 우려로 산지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7월과 8월 복경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25.2%나 하락했다.

2 잉여생계 구매·비축 추진

도계 마릿수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이 전년보다 크게 하락하는 동안 업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AI 피해를 입은 계열업체들의 종계 확보, 공장 가동률 정상화, 시장 점유율 문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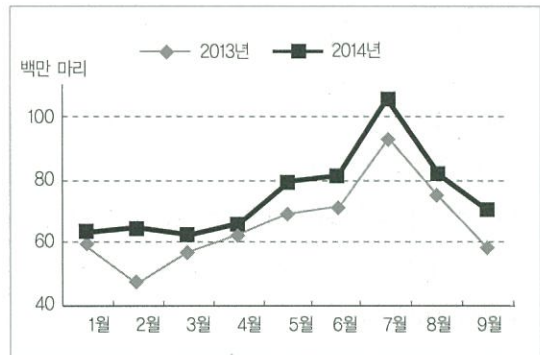
〈표 4〉 2014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 비교



※주: 환우 후 5월=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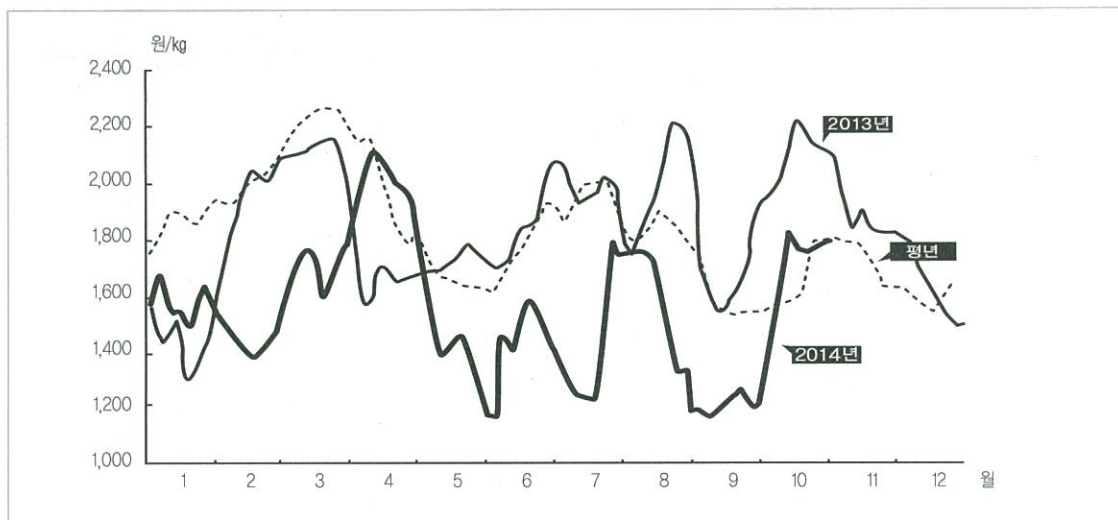
※자료 :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표 5〉 도계 마릿수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표 6〉 육계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09~2013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마침내 지난 9월 20일 ‘육계 수급조절 협의회’에서 잉여 생계에 대한 구매·비축이 협의되어 10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구매·비축은 10월 육계 도계 마릿수 중 약 6%를 계열사들이 구매하여 비축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방안이었다. 구매·비축 규모는 300~35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1일 10만 마리 이상 구매되었다.

농업관측센터에서는 10월 도계 마릿수를 전년 대비 1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구매·비축으로 인해 시중에 유통되는 육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생계 구매·비축이 추진되면서 기존 육계 산지가격 전망치 1,100~1,300원/kg에서 1,400~1,600원/kg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육계 산지가격은 1,700원/kg으로 구

매·비축 전 전망치 대비 30~50%의 가격 상승 효과를 가져왔다.

11월에도 도계 마릿수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비축은 11월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 350~450만 마리가 구매·비축될 경우 육계 공급량은 기존 전망치의 7~9%p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지가격도 1,500~1,700원/kg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하반기 닭고기 수급 전망

지속적인 종계 환우로 연말까지 병아리 생산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업체의 실용계 병아리 입식의향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도계 마릿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동월 대비 13.5% 증가한 7,235만 마리로 추정되며, 11~12월 도계 마릿수는 각각 전년 동월보다 13.7%, 6.6% 증가한 7,235만, 7,482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4년 하반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4억 2,359만 마리보다 12.6% 증가한 4억 7,705만 마리로 전망된다. 도계 마릿수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1~12월 기존 육계 산지가격 전망치는 11월 1,000~1,200원/kg, 12월 1,100~1,300원/kg이었지만, 잉여 생계 구매·비축 영향으로 11월 1,500~1,700원/kg, 12월은 1,300~1,500원/kg으로 상승 수정되었다. 하반기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1,887원/kg보다 21.3% 하락한 1,486원/kg으로 전망된다.

4 맺음말

잉여 생계 구매·비축 추진으로 육계 시장은 일시적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4분기 육계 산지가격은 구매·비축 추진 전보다 26% 정

도의 가격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구매·비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계열업체들의 병아리 입식을 줄이기로 했지만, 10월 입추 실적은 전월과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도계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계열업체들의 구매여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관건이다. 또한 현재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냉동 비축물량이 육계 가격 상승시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축물량 소진도 큰 과제이다.

육계 시장이 이미 불황의 터널로 들어섰다. 생계 구매·비축의 빛으로 터널이 일시적으로 암흑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터널 안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되겠다. 불황의 터널이 2014년을 지난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 계획과 함께 중·장기적인 불황 탈출 처방이 시급한 때이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표 7〉 하반기 육계 산지가격 동향 및 전망

(단위: 원/kg)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4년	1,983	2,011	1,684	2,097	1,894	1,655	1,887
2013년	1,463	1,523	1,229	1,700 (1,200)	1,600 (1,100)	1,400 (1,200)	1,486 (1,289)
증감률(%)	-26.2	-24.3	-27.0	-18.9 (-42.8)	-15.5 (-27.5)	-15.4 (-27.5)	-21.3 (-31.9)

※주: ()안은 잉여 생계 구축·비축 전 전망가격과 증감률

※자료: 농협중앙회